

그해 겨울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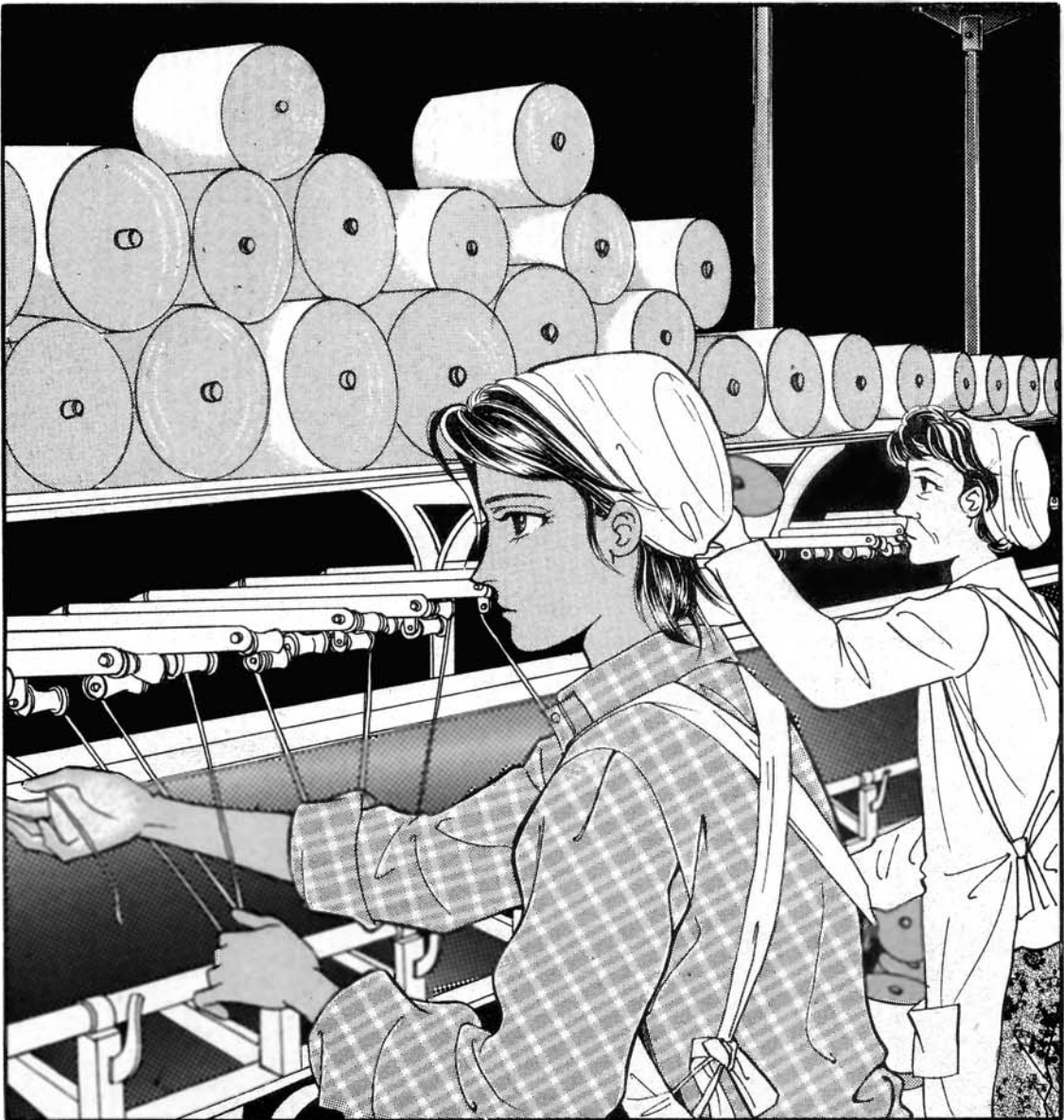
새벽 1시 30분

줄리아...



양여진

줄리아.
21세의 필리핀 처녀.
한국에서 불법체류하며
방직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2년.
하루 14시간 일하고
한달 18만원을 받습니다.



줄리아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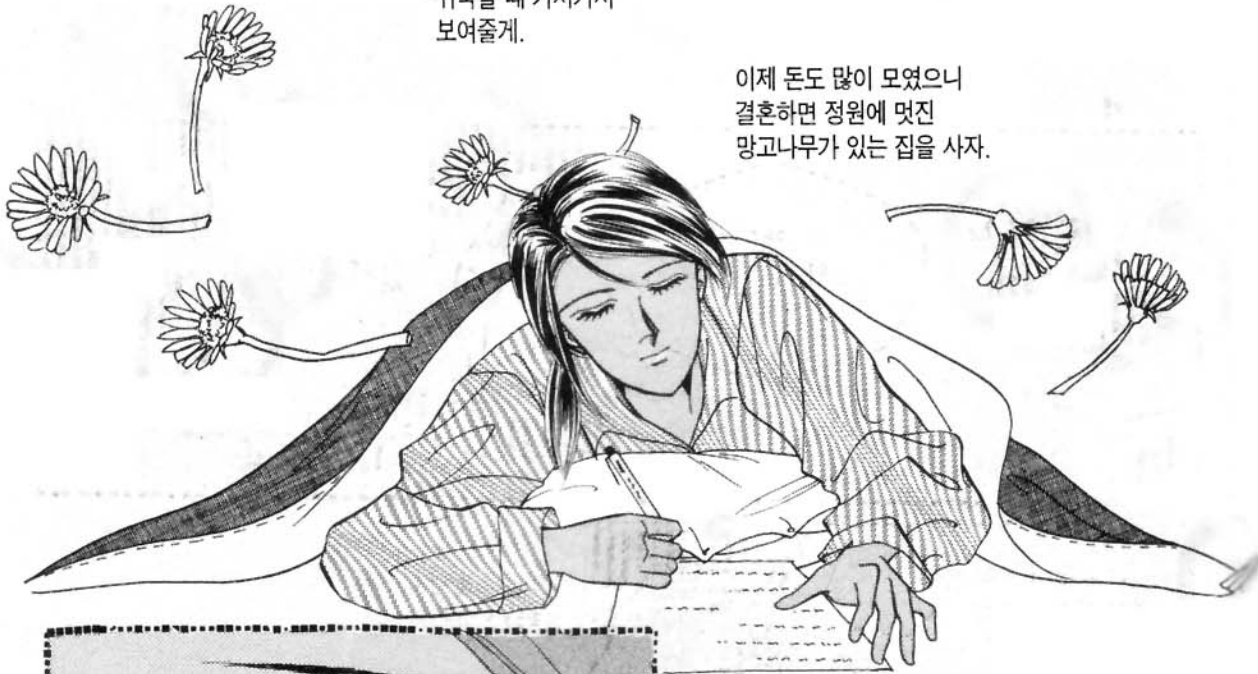
여긴 대우도 아주 좋고
한달 후엔 귀국
하잖아요...

리살에게도
써야겠지?



사랑하는 리살.
여기 한국에는
예쁜 꽃이 있어.
국화라고 하던데...
귀국할 때 가져가서
보여줄게.

이제 돈도 많이 모였으니
결혼하면 정원에 멋진
망고나무가 있는 집을 사자.



정말...
행복하겠지, 그땐...
... 보고 싶어...

그녀의 눈물은
피부색처럼
갈색일까요?

아니, 우리처럼
투명합니다. 우리 눈물이
노랑져 않듯이 피부색만
다들 뿐 우리의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어머!
줄리아!
코피를
흘리잖아!



그러게 왜
1주일이나 야근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약 먹어.



그렇게 열심히 해 봤자
우린 한국 노동자들
1/3밖에 못 받잖아.

약이라 해 봤자
박카스 1병.

그러나 추운 겨울밤에
더 차가운 박카스가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동료들의 정성 때문일까요...



돌아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몸 생각도 좀
해야지.



예전 동료 벨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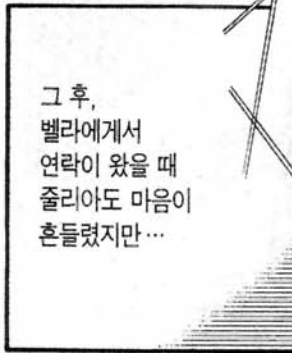


벨라는
대학까지 나온
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모 때문에
공장장에게 강제로
폭행당했고...



곧바로 해고되고
강남의 아파트에
식모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벨라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줄리아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숙식도 제공되고
아이들에게 영어도
가르쳐. 거기처럼
힘든 일도 없고,
너도 와.

공장에서
단체로 보는
적금을
해약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방직일이
손에 익어서 이젠
힘들지도 않아, 벨라.
걱정 말고 종종
연락해.



벨라는 잘 있을까?



줄리아...
나, 술집 나가.



집주인에게 또
그런 일을 당했고,
이왕 이렇게 된 것
돈이라도 더
벌려고...



줄리아...
미안해. 나도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

갑소사...
벨라...

이 세상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7시 30분

리—살!

나,
돌아왔어!

줄리아!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줄리아...

줄리아는
꿈을 꾸니다.

가끔씩 얼굴도
붉혀가며...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유리창엔 성애가 가득한
추운 겨울밤입니다.

일요일 새벽 1시 30분

괜찮다니까요.
매일 걱정만
하셔.
전 건강해요.

예. 엄마.
로사는 학교 잘
다니고 있죠?
돈 송금해 드린
거 잘 받으셨고?

여긴 조금...
날씨가 싸늘한 것
빼곤 불편한 것
없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오늘...

500

돈이 조금
남았다!
리살에게
할 수 있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리살!
나야!

줄리아?
줄리아구나!
아직 안 잤어?

리살!
보고 싶은 리살!

아냐. 잠은
충분히 자니까
걱정 마.
그리고 곧
귀국하잖아.

아! 벌써 돈이...
남은 돈이 없는데...

줄리아...
보고 싶어...
다음 달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으응...
새벽 전화가
좀 싸잖아.
그래서...

부우우

응...
나도, 나도
사랑해, 리살.



트럭...?
라이트가,
눈부셔!!

뭐라고?
뭐라고 했어?

사랑해!



아...
트럭소리 때문에...

한화여

Energy Pla

안들려!
뭐라고? 줄리아?

사랑해애애—





이 나라에 와서...
가장 아름다웠던 건...
도시의 비온이 아닌...



...눈...



내 나라
필리핀에선
본 적 없었던.

리살,
당신에게도
보여 주고 싶어.
새하얀 눈송이.

불이야!
불!

줄리아, 어서
일어나!

몰랐어?
우리가 도망갈까
봐 밤엔 항상
밖에 잠그잖아!

창문은?
창문으로
나가자!

틀렸어.
너무 작아!

젠장!
석유불이잖아!
물도 소용 없어!

출입구가
잠겨 있어!

불?

엄마!
아빠!

...리살!





줄리아...
우리... 이대로
죽는 걸까...

악한 소리
하지 마!
문이 열릴
거야!

빨리 창문을
깨서 환기를
시켜요!

제발 열어
주세요!
문 열어요!

사람 있어요!
살려 주세요!

얼기 때문인가...
앞이 흐려진다...

안돼! 안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난... 곧... 돌아가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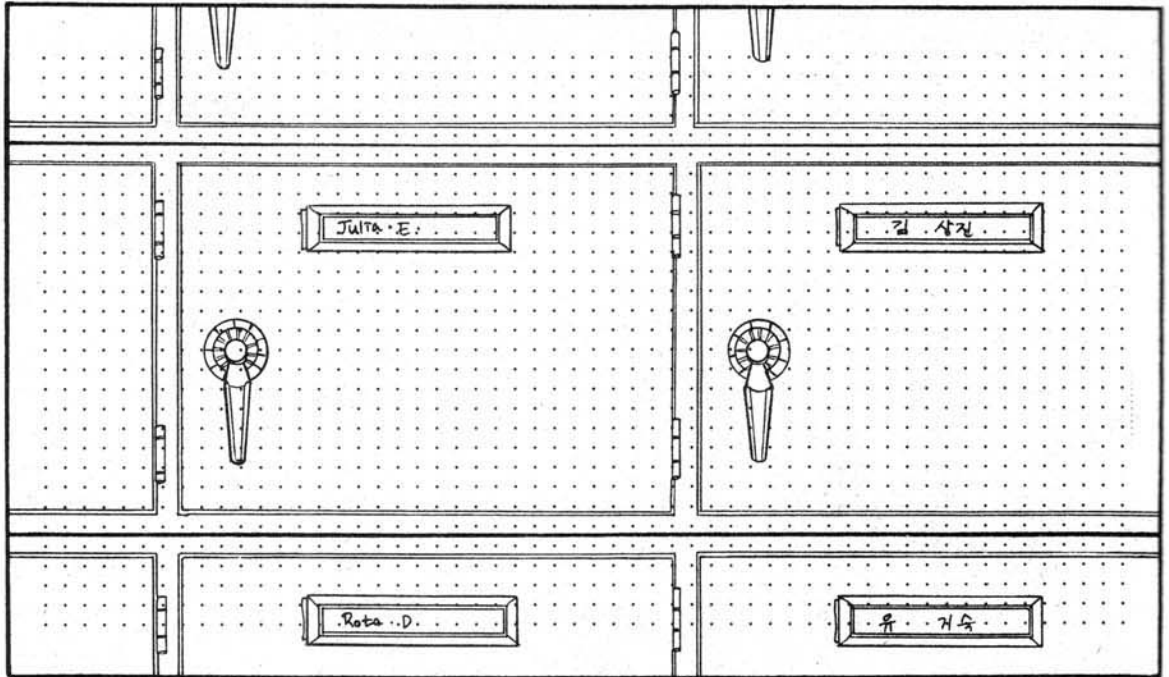
줄리아가
사랑했던 눈이
내립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이미 그 눈을 볼
그녀는 없습니다.

차가운 시체 안치소에서 이젠 영원한 잠을 잡니다.



줄리아의 빈소엔 국화꽃을 가져다 주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